



세계 감염되는 언어 바이러스!

경향 大賞
경향신문 2014 10월 10일 대상을 수상

기출문제를 지배하는 자

2014 수능 B형

기출문제를 지배하는자
Lesson 1

2014학년도
수능국어 B형



기술문제를 지배하는 자
2014학년도 수능 B형 '화법'

기술 문제

* 다음은 학습 활동 과제에 따라 진행한 '모의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 활동] 다음 상황을 보고, 양측 대표의 역할을 맡아 협상을 해 보자.

한 식품 가공 회사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농업 기반 도시인 ○○시로 공장을 확장하여 이전하기 위해 시청과 협상하려 한다. 회사 측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전 허가를 받으려 하고, 시청 측에서는 공장 이전을 허가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주민 소득을 늘리려 한다.

[모의 협상]

회사 측 : 저희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그 문제부터 다루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자면 전체 직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지역 주민만으로 충원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분명히 지역에 이득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측 : 저희가 걱정하는 건 공장 하수로 인해 하천 오염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부터 듣고 싶습니다.

회사 측 : 예, 공장을 이전하면서 최신 하수 처리 시설을 완비할 예정인데, 하수 배출 관련 규정에 제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정화 및 탈취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청 측 : 좋습니다. 하수 처리가 철저히 된다면 공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안하셨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역 주민 채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늘긴 하겠지만 주민 다수가 공장 이전의 효과를 체감하기엔 제시하신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말씀하신 채용 인원을 세 배 늘려 주십시오.

회사 측 : 그러려면 공장 이전과 동시에 기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전체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곤란합니다. 대신 채용 인원을 점차 늘려 5년 후에는 현재 채용 예정 인원의 두 배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측 :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대신에 가공 식품 원료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장 이전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를 주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회사 측 : 좋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과 가격 차이가 없으니 그렇게 하지요. 그 대신 지역 주민들도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니, 저희가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청 측 : 저희 농산물을 구입하신다면 가격 할인 없이도 회사 측에 운송비 절감의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농산물 가격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생산 농가 주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측 :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제 1] 협상에 대한 설명 중 위 '모의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 ① 협상 참여자 양측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 ② 협상에서는 참여자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간다.
- ③ 협상 방법 중에는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여 절충하는 방법이 있다.
- ④ 협상에서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협상에서 어떤 쟁점을 우선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협상 참여자들 간에 서로 다를 수 있다.

[문제 2] '회사 측'의 발화 의도를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은 자신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② ㉠은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 ③ ㉠은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발화이고, ㉡은 자신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이다.
- ④ ㉠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발화이다.
- ⑤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탐색하려는 발화이다.

[문제 3] '모의 협상'에서 제시된 제안 가운데 다음 ㉢,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협상 주체	제 안
회사 측	현재 직원 수의 10%를 지역 주민으로 추가 채용하겠음.㉢
시청 측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구입해 주기 바람.㉣

- ①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②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③ 제안하는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실을 감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군.
- ④ 제안하는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⑤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제안이군.

독해의 쟁점

- 독해의 기본은 내가 읽고 있는 글이 어떤 유형의 글이고, 주어진 텍스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읽어 나가는 것이다. 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독해에서 배경지식 보다 중요하다.
201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한 지문은 ‘협상’이다. ‘협상’은 ‘집단 화법’의 하나로서 참여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화법 유형의 하나이다.
- 협상 지문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독해 순서)

- ① ‘협상’의 참여자를 확인한다.
- ② ‘협상’의 쟁점(목표)를 확인한다.
- ③ 참여자 간의 입장을 확인하며 독해한다.
조건/요구사항 제시 ➡ 수용 or 거부 or 절충안 제시
(절충안이 제시되었다면 다시 이것에 대한 수용과 거부를 확인한다)
- ④ 협상 참여자가 사용하는 특정한 말하기 방식을 확인한다.
(비교-대조, 수치, 인용, 개념, 비유, 예시, 경험 등)
- ⑤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는지 결렬되었는지 확인한다.

[단락별 지문 독해]

[학습 활동] 다음 상황을 보고, 양측 대표의 역할을 맡아 협상을 해 보자.

한 식품 가공 회사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농업 기반 도시인 ○○시로 공장을 확장하여 이전하기 위해 시청과 협상하려 한다. 회사 측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전 허가를 받으려 하고, 시청 측에서는 공장 이전을 허가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주민 소득을 늘리려 한다.

- 협상의 목표 : ‘공장 이전’
- 회사측의 입장 : 비용 부담 최소화
- 시청측의 입장 : 공장 이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주민 소득 증대

[모의 협상]

회사 측 : 저희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그 문제부터 다루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자면 전체 직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지역 주민만으로 충원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분명히 지역에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쟁점 제시 : 경제적 측면
- 조건 제시 : (공장 이전을 허가 해 준다면) 직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역주민으로 충원하겠다.

- 요구사항 제시 : 공장을 이전해 달라.

시청 측 : 저희가 걱정하는 건 공장 하수로 인해 하천 오염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부터 듣고 싶습니다.

- 세부 쟁점 : 공장 이전으로 인한 하천 오염 및 피해 발생
- 요구사항 제시 : (이전 허가를 하기 전에) 하천 오염에 대한 대비책 제시 요구

회사 측 : 예, 공장을 이전하면서 최신 하수 처리 시설을 완비할 예정인데, 하수 배출 관련 규정에 제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정화 및 탈취 처리를 하겠습니다.

-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 ① 최신 하수 처리 시설 완비 ② 엄격한 기준으로 정화 및 탈취

시청 측 : 좋습니다. 하수 처리가 철저하게 된다면 공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안하셨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역 주민 채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늘긴 하겠지만 주민 다수가 공장 이전의 효과를 체감하기엔 제시하신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말씀하신 채용 인원을 세 배 늘려 주십시오.

- 제시한 조건에 대한 수용
- 세부 쟁점 변경 : 공장 이전으로 인한 피해 방지 → 일자리 문제
- 회사측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거부 → 절충안 제시 (채용 인원 세 배로 늘려 달라)

회사 측 : 그러려면 공장 이전과 동시에 기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전체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곤란합니다. 대신 채용 인원을 점차 늘려 5년 후에는 현재 채용 예정 인원의 두 배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①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측의 절충안에 대한 거부 → 재절충안 제시 (5년 후에 두 배가 되게...)
- 양보의 기준 제시 :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시청 측 :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대신에 가공 식품 원료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장 이전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를 주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군요.

- 상대가 제시한 재절충안에 대한 수용
- 조건 제시 : 식품 원료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 달라.

회사 측 : 좋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과 가격 차이가 없으니 그렇게 하지요. 그 대신 지역 주민들도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니, 저희가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시청측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수용
- 요구사항 제시 :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

시청 측 : 저희 농산물을 구입하신다면 가격 할인 없이도 회사 측에 운송비 절감의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농산물 가격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생산 농가 주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 회사측의 요구 사항에 대한 판단 유보 : 가격 결정을 할 주체가 시청이 아님
(주의할 것은, 이 경우 가격 결정은 농민들이 해야 한다고 한 것이지 농민들에게 ‘공장 이전’ 문제 협상에 대한 중재를 맡긴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음에 ○○을 하자’로 논의가 끝날 경우 대부분의 경우 ‘다음 협상에서 다룰 문제로 올바른 것은’과 같은 이후 과정에 대한 문제도 연계되어 출제되므로 주의해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회사 측 :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시청측 입장에 대한 수용

문제 해설과 개념 정리

[문제 1] 협상에 대한 설명 중 위 '모의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 협상 내용에 대한 사실적 확인을 묻는 문제이다. 반드시 각각의 선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근거를 가지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답을 선택해야 한다.

- ① 협상 참여자 양측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 ↳ 협상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 위 지문에서도 시청측과 회사측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공동의 목적('공장 이전')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② 협상에서는 참여자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간다.
 - ↳ ①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 ③ 협상 방법 중에는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여 절충하는 방법이 있다.
 - ↳ 예를 들어, 채용인원의 세 배 요구(시청 측) → 당장 어렵고 5년 후에 두 배가 되게 하겠다(회사측) → 수용하겠다. 대신에 가공 식품 원료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해 달라(회사측, 조건을 제시하여 절충)
- ④ 협상에서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 ↳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제 해결 방식은 맞으나, 이 지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⑤ 협상에서 어떤 쟁점을 우선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협상 참여자들 간에 서로 다를 수 있다.
 - ↳ '협상' 시작 부분에서 '회사측'은 경제적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했고, 시청측은 환경문제에 대해 먼저 협상하고 싶어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 2] '회사 측'의 발화 의도를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협상 참여자들의 숨겨진 발화 의도 확인

㉠은 '공장 이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한 것이고, ㉡은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충언을 제시하면서 양보할 수 없는 최종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은 자신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② ㉠은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 ③ ㉠은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발화이고, ㉡은 자신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이다.
- ④ ㉠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발화이다.
- ⑤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탐색하려는 발화이다.

[문제 3] '모의 협상'에서 제시된 제안 가운데 다음 ㉢,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제안의 공통점 확인

협상은 표면적으로 대립되는 주장이 나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독해측 하는 입장에서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문제에서는 오히려 대립되는 주장에 대해 묻는 경우보다 주장의 공통점을 역으로 묻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독해시에 공통되는 견해(상대방 입장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언급되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상 주체	제안
회사 측	현재 직원 수의 10%를 지역 주민으로 추가 채용하겠다.㉢
시청 측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구입해 주기 바람.㉣

	회사측	시청측
㉢	손해 없음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	손해 없음 운송비 절감의 이익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 ①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②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③ 제안하는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실을 감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군.
- ④ 제안하는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⑤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제안이군.

기출 문제

※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엑스선이라 하면 흔히 의학 분야에 활용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엑스선이 미술 작품 연구에도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보여 주면서) 먼저 인물화를 하나 보시죠.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인물화는 고호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호 작품 전시회에서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일단 다음 작품을 보시죠.

(화면으로 '그림 2'를 보여 주면서) 이 작품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 고호의 '잔디밭'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인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밝혀내는 데 엑스선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엑스선이 이용됐다니까 의아하시죠? 과학 선생님께서 들은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이 엑스선을 이용해서 고호의 작품들을 조사하다가 이 '잔디밭'이 그려진 캔버스에 원래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복원한 원래의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이 인물화입니다. 이 인물화가 그려진 캔버스 위에 고호가 다시 물감을 덧칠해서 '잔디밭'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화를 전시회에서는 직접 보기 어렵고 이렇게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1'과 '그림 2'가 나란히 배치된 화면을 보여 주며) 자, 이제 두 그림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미술 작품을 연구하는 데 엑스선이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문제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알려 주어야겠군.
- ②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해야겠군.
- ③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켜야겠군.
- ④ '그림 1'과 '그림 2'를 작가가 한 캔버스에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 ⑤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해야겠군.

[문제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였다.
- ② 발표 중간 중간에 그림들의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 ③ 사적인 상황에 걸맞는 호칭어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친근감을 불러 일으켰다.
-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 ⑤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독해의 쟁점

- 2014학년도 수능에서 A형과 B형에 공통으로 출제된 지문이다. 발표는 대중 화법으로서 발표자의 발표내용, 말하기 방식, 청중과의 적절한 소통, 매체 언어의 적절한 사용 등을 판단하면서 독해해야 한다.
- ‘발표’ 지문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독해 순서)

① 발표 주제를 확인한다.

② ‘발표’의 목적을 확인한다. (설명 / 주장)

③ 단락별로 발표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④ 협상 참여자가 사용하는 특정한 말하기 방식을 확인한다.

- ① 비교-대조, 수치, 인용, 개념, 비유, 예시, 경험 등
- ② 청중과의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질문 등)
- ③ 적절한 비언어, 반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④ 격식에 맞는 언어(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⑤ 적절한 매체를 사용(시청각 자료)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단락별 지문 독해]

① 여러분은 엑스션이라 하면 흔히 의학 분야에 활용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엑스션이 미술 작품 연구에도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 발표의 주제 : 엑스션이 미술 작품 연구에도 활용된다.
- 발표의 목적 : 설명 (정보 제공)

② (화면으로 ‘그림 1’을 보여 주면서) 먼저 인물화를 하나 보시죠.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인물화는 고희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희 작품 전시회에서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일단 다음 작품을 보시죠.

- 설명 대상과 관련된 적절한 매체(그림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질문과 대답을 통해 청중과 적절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음.
- 부분적으로 비격식체를 사용하고 있음 (Ex. 보시죠 → ‘해요’체)

③ (화면으로 ‘그림 2’를 보여 주면서) 이 작품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 고희의 ‘잔디밭’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인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밝혀내는 데 엑스션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 말하기 방식 : 설명 내용과 관련된 적절한 ‘예시’ 사용

④ 엑스선이 이용됐단니까 의아하시죠?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이 엑스선을 이용해서 고흐의 작품들을 조사하다가 이 '잔디밭'이 그려진 캔버스에 원래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 말하기 방식 : '인용'을 통해 신뢰성 획득

⑤ 컴퓨터로 복원한 원래의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이 인물화입니다. 이 인물화가 그려진 캔버스 위에 고흐가 다시 물감을 덧칠해서 '잔디밭'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화를 전시회에서는 직접 보기 어렵고 이렇게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② 문단에서 제기한 답변에 대한 해답 제시

⑥ ('그림 1'과 '그림 2'가 나란히 배치된 화면을 보여 주며) 자, 이제 두 그림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미술 작품을 연구하는 데 엑스선이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문제 해설과 개념 정리

[문제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발표 계획은 위 지문에서 제시된 바가 없다. 결국 '발표 계획'이 반영되어 실행된 '발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알려 주어야겠군.

↳ ① 문단에서 어려운 점 제시 후 ⑤ 문단에서 이유를 알려주고 있음

②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해야겠군.

↳ ④ 문단에서 사용된 말하기 방식 (인용)

③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켜야겠군.

↳ ③ 문단에서 사용된 말하기 방식 (예시)

④ '그림 1'과 '그림 2'를 작가가 한 캔버스에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 위 발표에서 언급한 적이 없음

⑤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해야겠군.

↳ ⑤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음

[문제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문제 1]과 유사한 논점을 가지는 문제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지문에서 주어진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다음은 발표 준비 과정에 있어 적절한 준비 (청중 분석, 매체 사용, 말하기 방식 등)가 되었는지 확인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였다.

↳ 발표 여러 곳에서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발표자 혼자 답하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적절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추후 다른 ‘발표’문제에서도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묻는 선지가 있으면 지문 속에서 적절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② 발표 중간 중간에 그림들의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 글 속에서 발표자가 언급한 적이 없다.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거 없는 선지이다.

③ 사적인 상황에 걸맞는 호칭어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친근감을 불러 일으켰다.

↳ 발표는 ‘공적 말하기’이므로 ‘사적인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고, ‘여러분’이라는 호칭어를 쓰고는 있으나 이것이 청중에서 특별한 친근감을 주는 것도 아니다.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 글 속에서 발표자가 언급한 적이 없다.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거 없는 선지이다.

⑤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 발표의 마지막에 사용된 말하기 방식 중 ‘비유’는 확인할 수 없다. 발표의 마지막에는 매체 활용과 질문의 방식만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기출문제를 지배하는 자
2014학년도 수능 B형 '작문'

기출 문제

※ <보기 1>은 '생태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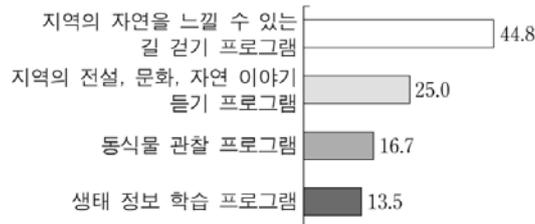
<보 기 1>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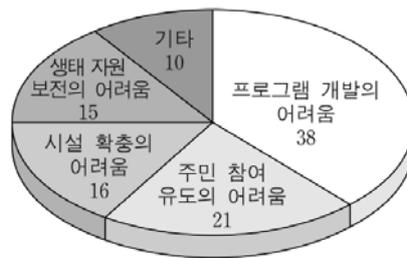
최근 생태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태 관광은 경치를 보고 즐기는 기존의 관광과 달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 세대로 잘 보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리한 개발로 숲과 높지가 사라지거나 관광객들의 인식 부족으로 생태계가 오히려 훼손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보아 생태 관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태도도 생태 관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 조사 자료

1. 관광객들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 유형(%)



2. 지방 자치 단체의 생태 관광 운영상의 어려움(%)



(다) 우수 사례

- □□ 지역은 민물고기 생태관광과 인근 동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됨.
- 철새 도래지인 ○○섬은 겨울 철새를 관찰하거나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탐구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계소득이 증대됨.

<보 기 2>

- 서론 : 생태 관광의 의의와 현황
- 본론

1. 문제점 분석

- 가. 생태 자원 개발 측면 ㉠
- 나. 지역 주민의 참여 측면 ㉡
- 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 ㉢

2. 개선 방안 제시 가. 생태 자원 개발 측면 나. 지역 주민의 참여 측면 ㉔ 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 ㉕ 라. 관광객의 태도 측면 ◦ 결론 : 바람직한 생태 관광을 위한 노력 촉구

[문제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가)에서 생태 관광을 위한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자연히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㉔에서 '생태계 훼손' 문제를 다룬다.
- ② (가)와 (나)-2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생태 관광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 문제를 다룬다.
- ③ (나)-1과 (다)에서 생태 보전을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㉔에서 '생태를 보전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를 다룬다.
- ④ (다)에서 생태 관광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주민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㉔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방안을 다룬다.
- ⑤ (나)-1에서 지역의 자연이나 고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㉕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다룬다.

[문제 7] <보기 2>의 본론 일부를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3점]

<조 건> ◦ '본론-2-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순서로 전개할 것
--

- ① 자연을 즐기면서도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자연을 충분히 즐기되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 ② 생태 관광은 양보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생태 관광의 규모를 키우려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수용 인원을 제한해야 자연을 보전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철새를 가까이서 구경하느라 철새를 쫓아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생태 관광은 자연과 경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관광이 되어야 한다.
- ④ 자연은 우리 세대의 자원인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그러므로 생태 관광을 할 때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식물을 관찰할 때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 ⑤ 관광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관광객들의 승용차 배기가스로 인해 그 지역의 환경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해당 상품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 8] <보기>의 항목 중,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답사의 목적을 제시한다.
- ㄴ.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한다.
- ㄷ.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다.
- ㄹ. 참고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 ㅁ. 주관적 느낌이나 감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술한다.

<답사 보고서>

제 목 : 담양 일대의 정자를 다녀와서

작성일 : 2013년 ○월 ○일

작성자 : ○○○ 고등학교 '우리 문화 유적 탐방 모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자 문화가 발달해 왔다고 한다. 답사 전에 읽어 본 책에 의하면 16세기에는 이름난 누각과 정자의 수가 무려 885개나 되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 모임은 조선 시대 선비 문화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담양 일대의 정자를 찾아 전통 정자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담양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식영정이다. 이 정자는 그림자가 쉬고 있다는 이름만큼이나 머물러 쉬고 싶은 곳이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환벽당이었다. 우리를 안내해 준 문화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사화를 겪은 후 낙양한 김윤제가 지은 정자로, 정철 등과 교유하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고 한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며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제월당과 광풍각이다. 이 정자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인 소쇄원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정원은 16세기에 양산보가 지은 원림으로, 자연의 풍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곳곳에 정자를 두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 답사에서 돌아보았던 정자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문화 유산을 더욱 소중히 가꿔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답사를 떠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 (가)를 읽고, 친구들에게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나)를 썼다.

(가) 신문 기사

□□ 신문

○○시는 최근 '나눔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눔 도서관에서는 책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이웃과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도서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듣는 책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나)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

저는 얼마 전 신문에 나눔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곳을 찾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눔 도서관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용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우선 나눔 도서관은 책을 공유하는 나눔의 성격이 ㉠강화되어진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책을 ㉡기여받기도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읽은 책은 더 이상 읽지 않고 집에 쌓아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 둔 책이 한두 권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사고 싶지만 책값이 부담되어 망설이며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나눔 도서관이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동전으로 나눔터에 있는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쓰지 않는 물품은 도서관 내의 '나눔터'에서 '나눔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눔 동전과 교환하여 자신에게 ㉣요청되는 물건을 구입해 보세요.

㉤이처럼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도 나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아요. 지금 도서관 누리집을 누르시면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9]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고려한 방법이다. (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

- ① 나눔 도서관의 의미를 서두 부분에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 ②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야지
- ③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해야겠어
- ④ 나눔 도서관이 하는 일들 중 학생인 우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내용은 소개하지 말아야겠어
- ⑤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줘야지.

[문제 10] '국어 사랑 동아리' 친구들은 학교 누리집에 올랐은 글을 바르게 고쳐 주는 운동을 하고 있다. (나)의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강화된'으로 고쳐야 합니다.
- ② ㉡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기증'으로 바뀌야 합니다.
- ③ ㉢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뀌야 합니다.
- ④ ㉣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필요한'으로 바뀌야 합니다.
- ⑤ ㉤ :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 '그러나'로 고쳐야 합니다.

문제 해설과 개념 정리

- ‘작문’ 파트는 문제의 유형이 크게 변화가 없고, 제한된 유형에서 형태만 소폭 변화되어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 방식을 충분히 학습해야 한다.

문제의 분석

- [문제 6번] 문항은 수능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자료의 활용’문제이다.
- [문제 접근 순서]

① 문제 분석 (주제 + 문종)

② 보기 분석
 ① 진술된 <보기>는 핵심어 혹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② 그래프 <보기>는 제목과 변수, 가장 많은 부분을 찾아하는 항목을 확인한다.

③ 문제 적용
 ① 선지의 명제적 정오를 판단하지 말고, 선지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② 자료간의 인과 관계가 설정된 선지는 특히 주목한다.

* <보기 1>은 ‘생태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문제 분석] 주제 : ‘생태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문종 : 논설문

<보 기 1>

(가) 신문 기사

① 최근 생태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② 생태 관광은 경치를 보고 즐기는 기존의 관광과 달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 세대로 잘 보전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 ③ 그러나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리한 개발로 숲과 높이가 사라지거나 관광객들의 인식 부족으로 생태계가 오히려 훼손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보아 생태 관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태도도 생태 관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 ① 생태관광의 현황
 ② 생태관광의 목적
 ③ 생태관광의 운영상의 문제점 (거인등)
 ① 무리한 개발과 관광객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② 주민들의 소극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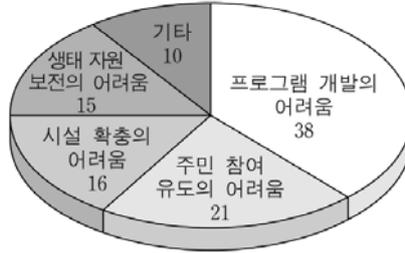
(나) 조사 자료

1. 관광객들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 유형(%)

생태 관광 프로그램 유형	원하는 비율 (%)
지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 걷기 프로그램	44.8
지역의 전설, 문화, 자연 이야기 듣기 프로그램	25.0
동식물 관찰 프로그램	16.7
생태 정보 학습 프로그램	13.5

- ㄴ ㉠ 주어진 도표의 제목을 확인할 것 (자신이 파악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
- ㉡ 도표 가운데 1위, 2위 정도는 확인할 것

2. 지방 자치 단체의 생태 관광 운영상의 어려움(%)



- ㄴ ㉠ 주어진 도표의 제목을 확인할 것 (자신이 파악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
- ㉡ 도표 가운데 1위, 2위 정도는 확인할 것

(다) 우수 사례

- □□ 지역은 민물고기 생태관광과 인근 동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됨.
- 철새 도래지인 ○○섬은 겨울 철새를 관찰하거나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탐구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계소득이 증대됨.

<보 기 2>

- 서론 : 생태 관광의 의의와 현황
- 본론
 - 1. 문제점 분석
 - 가. 생태 자원 개발 측면 ㉠
 - 나. 지역 주민의 참여 측면 ㉡
 - 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 ㉢
 - 2. 개선 방안 제시
 - 가. 생태 자원 개발 측면
 - 나. 지역 주민의 참여 측면 ㉣
 - 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 ㉤
 - 라. 관광객의 태도 측면
- 결론 : 바람직한 생태 관광을 위한 노력 촉구

[문제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ㄴ 자연 활용 문제와 개인 수정 문제가 결합되어 출제된 문제이다. 선지에서 적절한 자연인지 확인하고, <보기 2>의 개인에 일정 부분에 삽입 혹은 수정할 경우 ①상위 항목 포함여부나 ②문제전과 개선 방안 사이의 환경성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의 유형은 선택지의 구성이 아래와 같다.

- ① 뒷따옴표에서 ② ~을 이 끌어 낼 수 있으므로, ③ ~을 ~게 바꾼다(추가한다, 구체화시킨다)
- 우선 ① 부분을 끊어서 자연 가운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확인한다.
- ② 부분에서 진술된 내용이 ①에서 확인 가능한 것인지 살펴본다.
- ③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을 때 그 내용이 ③이 속해 있는 상위항목에 맞는지 문제전과 해결책이 짝을 이루는지 확인한다.

- ① (가)에서 / 생태 관광을 위한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자연히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생태계 훼손' 문제를 다룬다.
 ↳ (가)에서 '자연 훼손'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 '생태 자원 개발 측면'의 번주에 맞으므로 문제 없는 진술이다.
- ② (가)와 (나)-2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생태 관광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 문제를 다룬다.
 ↳ (가)와 (나)-2에서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1과 (다)에서 생태 보전을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생태를 보전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를 다룬다.
 ↳ (나)-1은 '지역적 특색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부족'을 말하고 있고, (다)는 우수 사례를 말하고 있으므로 '생태 보전을 고려한 관광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는 주어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④ (다)에서 생태 관광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주민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방안을 다룬다.
 ↳ (다)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고, ㉣의 항목에 넣었을 때 번주에 문제가 없다.
- ⑤ (나)-1에서 지역의 자연이나 고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다룬다.
 ↳ (나)-1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고, ㉤의 항목에 넣었을 때 번주에 문제가 없다.

[문제 7] <보기 2>의 본론 일부를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3점]

<조 > <조 >

- ‘본론-2-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순서로 전개할 것

↳ [조건 4] ‘관광객의 태도 측면’
 [조건 8] ‘근거 - 주장- 실천방안’의 구조

① 자연을 즐기면서도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즉 자연을 충분히 즐기되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기울여 한다.

↳ 조건 4에는 부합하지만, 조건 8에 맞지 않는다. (주장 - 부연)

② 생태 관광은 양보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생태 관광의 규모를 키우려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수용 인원을 제한해야 자연을 보전할 수 있다.

↳ 예약제 운영은 관광객의 태도나 무관하므로 조건 4에 부합하지 않고, 순서도 조건 8에 부합하지 않는다(주장 - 주장 - 실천방안)

③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철새를 가까이서 구경하느라 철새를 쫓아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생태 관광은 자연과 경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관광이 되어야 한다.

↳ <보기 1>의 (가)에서 관광객의 인식부족으로 자연이 훼손되는 문제를 지적했으므로, 지역과 경제, 주민들의 삶을 살리는 상생의 관광은 이 글에서 제시한 관광객의 태도나 무관하고(조건 4에 위배), 구조도 근거-주장은 있으나 실천방안이 구체적이라 보기 어렵다.

④ 자연은 우리 세대의 자원인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 그러므로 생태 관광을 할 때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동식물을 관찰할 때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 관광객의 태도(조건 4)를 적절히 언급했고, 순서 또한 근거-주장-실천방안으로 적절하다.

⑤ 관광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 관광객들의 승용차 배기가스로 인해 그 지역의 환경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관광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해당 상품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관광객의 태도(조건 4)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건 8에 맞지 않는다(주장 - 이유 - 실천방안)

[문제 8] <보기>의 항목 중,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나 '답사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먼저 <보기>를 읽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 핵심어 위주로 정리해 둔 후 <답사 보고서>를 읽으면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 낼 수 있다.

<보 기>

ㄱ. 답사의 **목적**을 제시한다.
 ㄴ.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한다.
 ㄷ.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다.
 ㄹ. 참고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ㅁ. 주관적 **느낌이나 감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술한다.

<답사 보고서>

제 목 : 담양 일대의 정자를 다녀와서
 작성일 : 2013년 ○월 ○일
 작성자 : ○○○ 고등학교 '우리 문화 유적 탐방 모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자 문화가 발달해 왔다고 한다. **답사 전에 읽어 본 책** (ㄷ, 참고자료층 언급하고 있으나 명확한 출처 '책의 제목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에 의하면 16세기에는 이름난 누각과 정자의 수가 무려 885개나 되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 모임은 **조선 시대 선비 문화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담양 일대의 정자를 찾아 전통 정자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ㄱ, 답사의 목적)

담양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식영정**이다. 이 정자는 그림자가 쉬고 있다는 이름만큼이나 머물러 쉬고 싶은 곳이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환벽당** (ㄴ, 이동 경로층 언급) 이었다. **우리를 안내해 준 문화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사화를 겪은 후 낙양한 김윤제가 지은 정자로, 정철 등과 교류하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고 한다.** (ㄷ,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 활용)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며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제월당과 광풍각이다. 이 정자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인 소쇄원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정원은 16세기에 양산보가 지은 원림으로, 자연의 풍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곳곳에 정자를 두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 답사에서 돌아보았던 정자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문화 유산을 더욱 소중히 가꿔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답사를 떠났다. (ㅁ, 주관적 느낌 감상을 언급하고 있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 (가)를 읽고, 친구들에게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나)를 썼다.

(가) 신문 기사

□□ 신문

○○시는 최근 '나눔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눔 도서관에서는 **책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이웃과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도서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듣는 책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 **나눔 도서관 소개 (책, 물건 나눔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나)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

① 저는 얼마 전 신문에 나눔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곳을 찾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눔 도서관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용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합니다.

↳ **나눔도서관의 의미 / 소개의 이유**

② 우선 나눔 도서관은 책을 공유하는 나눔의 성격이 **①강화되어진**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책을 **②기여** 받기도 합니다.

↳ **나눔도서관의 성격 (책을 공유하는 공간)**

③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읽은 책은 더 이상 읽지 않고 집에 쌓아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 둔 책이 한두 권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사고 싶지만 책값이 부담되어 망설이며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나눔 도서관이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 **나눔도서관의 성격 (책을 공유하는 공간)**

④ **③그 동전으로 나눔터에 있는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쓰지 않는 물품은 도서관 내의 '나눔터'에서 '나눔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눔 동전과 교환하여 자신에게 **⑤요청되는** 물건을 구입해 보세요.

↳ **나눔도서관의 성격 (쓰지 않는 물건 나눔)**

⑤ **⑥이처럼**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도 나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아요. 지금 **도서관 누리집**을 누르면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나눔의 성격 부연 / 동참 권유 / 추가 정보 알 수 있는 링크 제공 (매체 언어 활용)**

[문제 9]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고려한 방법이다. (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

↳ 글 내용의 사실적 확인과 함께 주요한 수사법 그리고 매체 언어의 특성(인터넷 게시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① 나눔 도서관의 의미를 서두 부분에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 ①에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언급하고 있다.

②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야지

↳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나눔의 정신 실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해야겠어
↳ ㉓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눔 도서관이 하는 일들 중 학생인 우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내용은 소개하지 말아야겠어
↳ (가) 신문기사에서 제시된 도서관 운영의 내용은 책, 목건의 나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듣기 교실 운영인데 (나)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있다.
- ⑤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줘야지.
↳ 매체 언어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글이기 때문에 ㉕ 부분에서 링크를 설정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10] ‘국어 사랑 동아리’ 친구들은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글을 바르게 고쳐 주는 운동을 하고 있다. (나)의 ㉑~㉔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고쳐 쓰기

- ① ㉑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강화된’으로 고쳐야 합니다.
↳ 강화되어진 → 강화 (어근) + 티다 (피동형) + 어지다 (피동형) 그러므로 이중피동으로써 비문이다. ‘어지다’를 생략하고 ‘강화 + 티다 = 강화된’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
- ② ㉒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기증’으로 바뀌야 합니다.
↳ ‘기여’는 ‘도움을 주다’의 의미로 사용되므로 위 글에서처럼 특정한 목건이 도움의 대상이 될 때는 ‘기증’ 더 적절하다.
- ③ ㉓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꾸야 합니다.
↳ ‘그 동전’에서 ‘그’라는 지시어가 받는 말이 없다. 그러므로 문장의 위치를 바꾸어서 ‘그’라는 지시어가 앞 문장에 나온 ‘나눔 동전’으로 근한 동전임을 적절히 지시할 수 있게 순서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추후 다른 문제에서도 지시어를 가진 문장이 문단의 첫 머리에 나올 때는 적절한 지시 관계를 가지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④ ㉔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필요한’으로 바뀌야 합니다.
↳ ‘필요한’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⑤ ㉕ :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 ‘그러나’로 고쳐야 합니다.
↳ 마지막 문단은 앞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성격을 가진 문단으로서 ‘그러나’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출문제를 지배하는 자
2014학년도 수능 B형 '문 법'

기출 문제

[문제 11]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① | 길이, 마중 | 무덤, 지붕 |
| ② |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
| ③ | 뒤뜰, 쌀알 | 무덤, 지붕 |
| ④ | 길이, 무덤 | 뒤뜰, 쌀알 |
| ⑤ | 마중, 지붕 | 길이, 쌀알 |

[문제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렇처럼 주름이 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 이랑', '꽃의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꽃오목'을 만들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꽃이랑'은 (㉠), '꽃오목'은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 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걸-웃[거돋], 헛-웃음[허두슴]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담-요[담:뇨], 흘-이불[흔니불]

- | | | | | |
|---|-------|-------|---|-------|
| | ㉠ | ㉡ | ㉠ | ㉡ |
| ① | [꼰니랑] | [꼬도목] | ② | [꼰니랑] |
| ③ | [꼰니랑] | [꼰노목] | ④ | [꼬디랑] |
| ⑤ | [꼬디랑] | [꼬도목] | | [꼬초목] |

[문제 13]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진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 기쁨이었다.
-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문제 14]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선생님 :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 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주신답니다.
 선생님 :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옹다옹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된다.

[문제 15]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

<보 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① 나는 아직 그 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흥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문제 16]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점]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 자음 ‘ㄷ’과 ‘ㄴ’이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ㄷ’은 ‘ㄴ’과 ‘ㄷ’이, ‘ㅃ’은 ‘ㄴ’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종성에서 ‘ㄷ’과 ‘ㅌ’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 연결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나) 나·랏·말·쓰·미·中·동·國·꺾·에·달·아·文·문·字·중·와·로·서·르·스·뫼·디·아·니·홀·씨·이·런·전·초·로·어·린·百·빅
 姓·성·이·니·르·고·저·흙·배·이·셔·도·무·츰·내·제·쁘·들·시·러·퍼·다·문·흙·노·미·하·니·라·내·이·를·爲·왕·ᄒ·
 야·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들·字·중·를·밍·ᄒ·노·니·사·름·마·다·히·ᄒ·수·비·니·겨·날·로·부·매·便·
 安·안·크·ᄒ·고·저·흙·쓰·르·미·니·라.

- ① ㉠을 보니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② ㉡을 보니, ‘:쁘·들’의 ‘ㅃ’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 ③ ㉢을 보니, ‘: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은 ‘ㄷ’으로 발음되었군.
- ④ ㉣을 보니 ‘:히·ᄒ’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성조가 달랐군.
- ⑤ ㉤을 보니, ‘:부·매’에는 연결 표기가 적용되었군.

문제 해설과 개념 정리

[문제 11]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① | 길이, 마중 | 무덤, 지붕 |
| ② |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
| ③ | 뒤뜰, 쌀알 | 무덤, 지붕 |
| ④ | 길이, 무덤 | 뒤뜰, 쌀알 |
| ⑤ | 마중, 지붕 | 길이, 쌀알 |

↳ '파생어, 합성어, 어근' 등의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문제가 추상적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선 선지에서 사용된 '길이, 마중, 무덤, 지붕, 뒤뜰, 쌀알'을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어 보자.

- 합성어 = 어근 + 어근
- 파생어 = 어근 + 접사 (접두사, 접미사)
- 어근 =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갖는 부분

- 길이 : 길('길다'- 형용사의 어간이므로 어근) + 이(접사) = 파생어
- 마중 : 맞('맞중하다'-동사의 어간이므로 어근) + 옹(접사) = 파생어 (어간의 형태가 달라짐)
- 무덤 : 묻('묻다' - 동사의 어간이므로 어근) + 언(접사) = 파생어 (어간의 형태가 달라짐)
- 지붕 : 집('명사'이므로 어근) + 응(접사) = 파생어 (어간의 형태가 달라짐)
- 뒤뜰 : 뒤(명사) + 뜰(명사) = 합성어
- 쌀알 : 쌀(명사) + 알(명사) = 합성어

[문제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등의 규정을 주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시키는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규정을 구체적 단어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꾸준히 해 두어야 한다.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랑처럼 주름이 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이랑’, ‘꽃의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꽃오목’을 만들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꽃이랑’은 (㉠), ‘꽃오목’은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ㄱ, ㅋ, ㆁ, ㄷ, ㄸ, ㄹ’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걸-읏[거돋], 헛-읏음[허두슴]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의,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담-요[담:뇨], 흘-이불[흔니불]

- | | | | |
|---------|-------|---------|-------|
| ㉠ | ㉡ | ㉠ | ㉡ |
| ① [꼰니랑] | [꼬도목] | ② [꼰니랑] | [꼬초목] |
| ③ [꼰니랑] | [꼰노목] | ④ [꼬디랑] | [꼬초목] |
| ⑤ [꼬디랑] | [꼬도목] | | |

↳ ① 문제를 주어진 구체적 단어를 확인한다. ‘꽃오목’, ‘꽃이랑’

② 주어진 표준발음법 조항 중 어떤 조항에 대한 예시인지 판단한다.

→ “꽃오목” = 받침 뒤에 모음 ‘ㄱ’ → ‘오목’은 명사로서 ‘실질형태소’ → 그러므로 15항 조건 충족
 → ‘꽃’을 대표음으로 바꾼 [꼰] →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 [꼬도목]

→ “꽃이랑” =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의’ → 29항 적용 → ‘ㄴ’소리 첨가 → [꼰니랑] → ‘꽃’은 대표음 [꼰]으로 발음 → [꼰]+[니랑]은 비음화 현상에 의해 [꼰니랑]으로 발음

[문제 13]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수능이 개정된 이후 '비문'의 수정' 문제는 다양한 포인트를 두고 출제되고 있다. 비문법적인 문장을 건
 토해서 잘못된 이유를 찾고 바른 문장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보 기>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진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회원들은'이 주어이고 서술어(부)는 '구입할 수 있다'이므로 주술호응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적
 적한 목적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품 구매를'을 '상품을'로 수정해야 한다.

-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 이 글의 특징은(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부)가 없다.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
 다는 것이다.'와 같이 호응하는 서술어를 넣어 주어야 한다.

-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 기쁨이었다.
 ↳ '여간'은 부정 서술어와 호응하는 부사어이다.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 기쁨이 아니었다'
 로 수정해야 한다.

-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 '유해 물질'은 전체 문장의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는 경우이다. '새 기계는 유
 해 물질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정도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 다만, 우리의 언어 관습상 '형언할 방법이 없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라는 표현은 다소 어색하다.

[문제 14]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인칭대명사나 지시어가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대상을 대화 상황 속에서 파악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문제의 낱어는 어렵지 않으나 자칫 실수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1인칭 = 대화의 화자 / 2인칭 = 대화의 상대방 / 3인칭 = 대화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자

<보 기>

선생님 :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 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주신답니다.
 선생님 :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한단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대화의 상황에 참석하고 있는 화자와 청자가 아닌 제3자(할아버지)이므로 3칭으로 파악한 것이 옳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된다.
↳ 1인칭(선생님-나)을 포함하지 않는 선생님의 아이들이고 이 대화 상황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대상들이므로 '3인칭'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문제 15]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

↳ 높임 표현 가운데 어휘를 통한 높임 표현을 묻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어휘를 통한 높임은 객체 높임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의 경우처럼 주체 높임에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여야 한다. 우선 ㉠의 경우, 주체를 직접 높이는 용언을 찾는데 이 경우 단순하게 일반적인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휘가 사용된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의 경우는 직접 높임 평요는 없으나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높임법이 사용된 것(간접 높임)을 찾아야 한다.

<p><보 기></p> <p>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u>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u>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 ① 나는 아직 그 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주체는 '나'인데 '나'를 높이는 것은 어색하고, 이 문장에서 사용되지도 않았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주체는 '누나'인데 주체를 높이는 어휘를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흥시를 잘 잡수신다.
↳ 주체는 '할머니'인데 주체와 관련하여 '떡다'가 아니라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 '잡수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적절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고, 또한 '연세'는 높여야 할 대상인 '할머니'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아니라 '연세'라는 높임의 의미가 있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주체는 '우리'를 높이고 있지 않고, 다만 대상인 '부모님'과 관련하여 '모시고'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 주체는 '어머니'인데, '피곤하셨는지'는 '피곤하다'에 단순히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 것이므로 <보기>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한 높임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주무신다'는 '자다'의 높임어휘이므로 특정한 어휘를 사용한 높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지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이는 것은 아니므로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문제 16]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점]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 자음 ‘ㄷ’과 ‘ㄴ’이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ㅈ’은 ‘ㄷ’과 ‘ㄷ’이, ‘ㅊ’은 ‘ㄷ’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종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나) 나랏·말·씨·미·中·동·國·궐·에·달·아·文·문·字·중·와·로·서·르·스·못·디·아·니·홀·씨·이·런·전·초·로·어·린·百·빅
 姓·성·이·니·르·고·저·홀·배·이·셔·도·못·춤·내·제·쁘·들·시·러·퍼·다·몬·홀·노·미·하·니·라·내·이·를·爲·왕·하·
 야·어·옛·비·너·겨·새·로·스·물·여·들·字·중·를·밍·그·노·니·사·름·마·다·히·여·수·비·나·겨·날·로·부·매·便·편
 安·한·크·히·고·저·홀·씨·르·미·니·라.

- ① ㉠을 보니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나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빙(순경음 비음)’이 들어 있다.
- ② ㉡을 보니, ‘:쁘·들’의 ‘ㅈ’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나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없는 병서자들이 쓰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을 보니, ‘:어·옛·비’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은 ‘ㄷ’으로 발음되었군.
 나 오늘날에는 음절의 끝소리 원칙에 따라 종성에 사용되는 ‘ㅅ’과 ‘ㄷ’을 모두 ‘ㄷ’으로 발음하지만 ㉢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종성의 ‘ㄷ’과 ‘ㅅ’을 구별하여 발음하였다. 그러므로 ‘어·옛·비’의 ‘옛’에 사용된 ‘ㅅ’은 ‘ㄷ’이 아니라 ‘ㅅ’으로 발음하였을 것이다.
- ④ ㉣을 보니 ‘:히·여’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성조가 달랐군.
 나 글자 왼쪽에 찍히는 점을 방점이라고 하고 방점을 통해 낱의 높낮이를 표현하고 이것이 비분적음운으로 기능하였다.
 평성 : 가장 낮은 소리로서 글자 왼쪽에 점을 찍지 않고 표현했다. (예) 나, 싸, 서르, 사맛 등
 상성 : 처음은 낮게 시작하여 끝이 높은 소리인 방점 두 개로 표현했다. (예) 딸
 거성 : 가장 높은 소리인 점 하나를 표현한다. (예) 갖, 미, 궐, 에 등
 상성은 평성으로 시작하여 거성으로 끝맺는 복합성조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장음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성조는 인진태간 이후 소멸되었다.
- ⑤ ㉤을 보니, ‘:부·매’에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군.
 나 식지형태소와 형식형태소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연철, 즉 이어적기라고 하는데 ‘:부·매’는 ‘쑤에’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해서 ‘쓰메’라고 쓰는 것과 같으므로 연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지배하는 자
2014학년도 수능 B형 '독서'



기출 문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의 사서(四書)는 배움을 위한 첫 단계에서 읽어야 할 책이다. 그 뒤를 이어 읽을 책은 ‘격몽요결’, ‘소학’, ‘근사록’, ‘성학집요’로 그 체계와 내용이 정밀하여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니 내가 일찍이 이를 후사서(後四書)라고 불렀다. 이를 반복하여 읽어 모두 이해하고 훤히 알게 되면 자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니 대양 동료들에게 배움의 규범으로 삼기를 권하였다.

사서 육경(四書六經)과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 책은 사람이 평생토록 익히기를, 마치 농부가 오곡을 심고 가꾸듯 해야 한다. 하나의 경서를 읽고 익힐 때마다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철저하게 해야 한다. 첫째, 경서의 글을 익숙하도록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둘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분별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읽어야 한다. 셋째,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하는 것을 풀어 가며 읽되 감히 자신해서는 안 된다. 넷째, 명확하게 분별하여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경서에서 그 문을 찾아 방으로 들어간다면, 방을 같이 하면서도 들어가는 문이 다른 여러 책들을 유추하여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학업을 이루어 세상에 이름난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했다. 이상은 용촌(熔村) 이광지(李光地)의 독서법이니 배우는 사람이 본받을 만하다.

-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문제 17] 윗글을 읽고 자신의 독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독서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권장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책을 읽어야겠어.
- ②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의문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며 책을 읽어야겠어.
- ③ 책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옳고 그름을 해결해 가며 책을 읽어야겠어.
- ④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독의 방법보다는 다독의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겠어.
- 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겠어.

[문제 18] 밑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현대 사회에서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기 위한 독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차례나 서문 등을 살핀 뒤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책을 선정하여 읽는다. 둘째, 필요한 정보의 유무를 파악하여 빠르게 훑어 나간다. 셋째,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책의 내용과 관련한 여러 관점들을 비교·대조해 가며 책을 읽는다.

- ① 책의 내용을 요약해 가며 읽는다.
- ②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 가면서 책을 읽는다.
- ③ 많은 양의 책을 읽기 위해 전체 내용을 빠르게 훑어 나간다.
- ④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함께 견주어 가며 책을 읽는다.
- ⑤ 차례나 서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한 책을 골라 읽는다

지문 독해와 문제 해설

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의 사서(四書)는 배움을 위한 첫 단계에서 읽어야 할 책이다. 그 뒤를 이어 읽을 책은 ‘격몽요결’, ‘소학’, ‘근사록’, ‘성학집요’로 그 체계와 내용이 정밀하여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니 내가 일찍이 이를 후사서(後四書)라고 불렀다. 이를 **반복하여 읽어 모두 이해**하고 훤히 알게 되면 자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니 매양 동료들에게 배움의 규범으로 삼기를 권하였다.

↳ [독서방법] 사서부터 후사서까지 반복하여 모두 이해할 때까지 읽기를 권장

② 사서 육경(四書六經)과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 책은 사람이 평생토록 익히기를, 마치 농부가 오곡을 심고 가꾸듯 해야 한다. 하나의 경서를 읽고 익힐 때마다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철저하게 해야 한다. 첫째, 경서의 글을 익숙하도록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둘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분별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읽어야 한다.** 셋째,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하는 것을 풀어 가며 읽되 감히 자신해서는 안 된다.** 넷째, **명확하게 분별하여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경서에서 그 문을 찾아 방으로 들어간다면, 방을 같이 하면서도 들어가는 문이 다른 여러 책들을 유추하여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학업을 이루어 세상에 이름난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했다. 이상은 **[용촌(鎭村) 이광지(李光地)의 독서법]**이니 배우는 사람이 본받을 만하다.

↳ [용촌 이광지의 독서법 소개]

- ① 익숙할 때 까지 반복하여 읽을 것
- ②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장단점을 비교하며 읽을 것
- ③ 자신하지 않고 정밀히 생각하고 의심나는 것을 풀며 읽을 것
- ④ 명확하게 분별하여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읽되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 것.

[문제 17] **윗글을 읽고** 자신의 독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지문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했는지 측정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윗글을 읽고’에 있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갖고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① 독서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권장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책을 읽어야겠어.

↳ [1문단] ‘사서’를 읽은 후 ‘후사서’를 읽으라고 단계씩 알려 주고 있고 책의 제목까지도 언급(권장 도서 목록)하고 있다.

②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의문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며 책을 읽어야겠어.

↳ [2문단]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하는 것을 풀어 가며 읽되 ….’

③ 책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옳고 그름을 해결해 가며 책을 읽어야겠어.

↳ [2문단] 넷째, **명확하게 분별하여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④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독의 방법보다는 다독의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겠어.

↳ 명제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이 문제의 조건에서 명시한 '읽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진술이다.

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겠어.

↳ [2문단] 넷째, 명확하게 본별하여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문제 18] 뒷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지문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읽고, 두 가지 견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묻는 문제이다. 개정 수능에서 '생활 독서' 파트에서 거의 항상 출제되는 문제이므로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보 기>

현대 사회에서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기 위한 독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차례나 서문 등을 살핀 뒤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책을 선정하여 읽는다. 둘째, 필요한 정보의 유무를 파악하여 빠르게 훑어 나간다. 셋째,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책의 내용과 관련한 여러 관점들을 비교·대조해 가며 책을 읽는다.

↳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기 위한 독서 방법]

- ① 차례나 서문등을 살핀다.
- ② 필요한 정보 유무를 빠르게 살핀다.
- ③ 책의 내용과 관련한 여러 관점을 비교, 대조한다.

① 책의 내용을 요약해 가며 읽는다.

②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 가면서 책을 읽는다.

③ 많은 양의 책을 읽기 위해 전체 내용을 빠르게 훑어 나간다.

④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함께 견주어 가며 책을 읽는다.

↳ <보기>의 3번째 방법 / ② 문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본별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차례나 서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한 책을 골라 읽는다

기출 문제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문제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문제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문제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항하는 것은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날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 | ㉠ '육체적 사건' | ㉡ '정신적 사건' |
|---|------------|------------|
| ① | a | b |
| ② | a | c |
| ③ | b | a |
| ④ | c | a |
| ⑤ | c | b |

지문 독해와 문제 해설

①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 ↳ **상식** :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 *vs.* 긴밀히 연결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 어려운
심신이원론은 (두 가지 상식이 충돌함에도)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

②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 ↳ **상호 작용론** : 정신과 육체는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 *But* 한계가 있음

③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 ↳ **평행론** :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각각 인과 관계 성립,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육체적 사건도 항상 평행하게 일어남.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 *But* 한계 있음

④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 ↳ **부수 현상론** :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음. 정신적 사건은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음 *But* 한계 있음

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 ↳ 심신 일원론 :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 그러므로 인과 관계는 물질적 사건 사이에만 존재한다.

[문제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심신 일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 ① 문단 : (정신과 육체가 서로 조화된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 ② 문단 : 상호 작용론 -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③ 문단 : 평행론 -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평행하게 항상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 ④ 문단 : 부수현상론 -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 ↳ ① 문단 : 두 가지 상식 ① 정신과 육체는 구분된다 ② 정신과 육체는 연결된다.
 - ↳ ⑤ 문단 : 동일론 -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두 가지 상식 중 ①의 상식은 부인

[문제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 ↳ 대립되는 견해가 주어졌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만 주목하여 독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 20처럼 공통되는 견해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서 독해해야 한다.
 - 평행론 : 정신과 육체적 사건은 어떠한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 동일론 :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 (정신적 사건 인정하지 않음)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 평행론은 부정 / 동일론은 인정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 평행론은 인정 / 동일론은 부정 (정신적 사건을 인정하지 않음)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평행론의 장점(3문단에서 직접 진술) / 5문단 - “인과 관계는 오직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만 존재한다”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모두 부인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 모두 부인

[문제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항하는 것은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지문 속에 사용된 ‘개념’을 ‘사례화’한 문제이다.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이나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됨
- 정신적 사건 →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보 기>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날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은 ㉡와 ㉢에 영향을 미치므로 ‘육체적 사건’ / ㉡는 ‘개펄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육체적 사건’ / ㉢은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으므로 ‘정신적 사건’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①	a	b
②	a	c
③	b	a
④	c	a
⑤	c	b

기출 문제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 맥락에 잘 부합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문제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문제 2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①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 ②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 ③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 ④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⑤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문제 24] ㉠과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업계는 이 제도를 환영했겠군.
- ② ㉠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 업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의 협찬 고지를 통해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 ③ ㉡이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겠군.
- ④ ㉡을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에 따른 광고와 ㉡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문제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다음은 인기 절정의 남녀 출연자가 등장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연인 관계로 설정된 두 남녀가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다.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져서 시청자들은 상표를 알아볼 수 없다.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소음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커피 전문점, 휴대 전화, 의상, 승용차는 이를 제공한 측과 방송사 측의 사전 계약에 의해 활용된 것이다.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다.

- ①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②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③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군.
- ④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군.
- ⑤ 방송 후 화면 속의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했다면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것이군.

지문 독해와 문제 해설

①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 PPL (간접광고)의 개념과 특징

②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가 더 주목**하게 된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 맥락에 잘 부합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의 개념과 특징 / 맥락 효과의 개념

③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 협찬 제도의 특징

④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의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 취지와 금지 사례 /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

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 프레임을 통한 미디어의 주체적 수용과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문제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 ① 문단 "...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 ③ 문단, 협찬 제도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제도를 운영해 왔다..."
-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 ② 문단,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 "... 간접광고에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 ④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 ↳ 간접 광고에 대한 소개는 하고 있으나 이론은 언급한 바가 없고, 발전과정 또한 언급한 바가 없다.

[문제 2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①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 ↳ ② 문단,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한다..."
- ②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 ↳ ① 문단,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 ③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 ↳ ⑤ 문단,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 ④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 ① 문단,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광고와는 달리 PP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놓고..." 결국 광고의 위치에 따라 구분한다.
- ⑤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 ↳ ① 문단, "...유준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문제 24] ㉠과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문제에서는 ‘추론한 내용’을 묻고 있다. 수능 국어영역에서의 비문학은 적대론 배경지식에 바탕을 둔 추론을 묻지 않는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과 ㉡의 개념과 특징부터 정리하고 선지를 검토해야 한다.

① ㉠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업계는 이 제도를 환영했겠군.

↳ ③ 문단 “...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 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② ㉡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 업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의 협찬 고지를 통해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 ③ 문단 “... 프로그램이 종료 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③ ㉡이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겠군.

↳ ④ 문단 “...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④ ㉡을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④ 문단 “...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 되었다...”

⑤ ㉠에 따른 광고와 ㉡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 ② 문단에서 간접 광고가 맥락에 잘 부합하면 맥락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③문단에서 ‘협찬제도’는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라고 하였으므로 ㉠과 ㉡은 모두 맥락에 부합한다면 맥락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 25]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개념의 사례화] 사례를 읽으면서 지문 속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인지 판단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보 기>

다음은 인기 절정의 남녀 출연자가 등장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연인 관계로 설정된 두 남녀가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다.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져서 시청자들은 상표를 알아볼 수 없다**.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소음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커피 전문점, 휴대 전화, 의상, 승용차는 이를 제공한 측과 방송사 측의 사전 계약에 의해 활용된 것이다.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다**.

- ①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② 문단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착용하거나..."
- ②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③ 문단 "...이 제도(협찬 제도)는...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므로 의상은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협찬 제도'를 활용한 광고이다.
- ③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군.
↳ 휴대전화는 간접 광고, 의상, 커피전문점(장소)은 협찬제도가 활용되었다. 승용차는 법적 허용범위를 넘는 간접광고에 해당한다.
- ④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군.
↳ ④ 문단 "...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의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 ⑤ 방송 후 화면 속의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했다면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것이군.
↳ ② 문단 "...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⑤번 선지에서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다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광고효과가 컸다고 타당한 추론이 가능하므로 맥락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기출 문제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 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적도 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이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 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약 1,600km/h로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의 관련이 있다. 지표 기준으로는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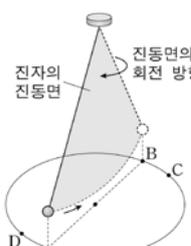
[문제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 ②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와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 ④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문제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파리의 팡테옹 사원에서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길이가 67m인 줄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g의 추를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①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 ③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 ④ 적도 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군.
- ⑤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군.

지문 독해와 문제 해설

①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 지구의 자전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전향력 소개

②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 전향력의 원인 = 지구 자전

자전 속력 : 적도 > 고위도 > 극(0)

③ **적도 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이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 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약 1,600km/h로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 [예시] 적도 → 북위 30도 지점 (자전 속도 차 약 200km/h)

목표 지점보다 동쪽(오른쪽)으로 편향

④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 [예시] 북위 30도 → 북위 60도 지점 (자전 속도 차 약 600km/h)

목표 지점보다 더 오른쪽으로 편향

★ 모든 예시 문단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제시되는 것이다. 예시 문단을 읽을 때는 이 예시가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핵심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③문단과 ④문단에서 제시한 예는 결국 ④문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전속력(위도)에 따른 편향정도(전향력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 든 것이다.

⑤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된다.

↳ 전향력의 크기는 물체의 이동 속력에 비례한다.

전향력의 방향은 운동물체의 진행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된다.

[문제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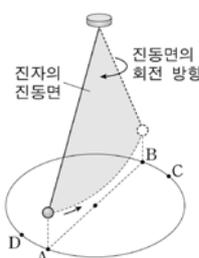
-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 ↳ ② 문단 "...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 ②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와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 ⑤ 문단 "...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 ↳ ② 문단 "...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 ④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 ↳ ⑤ 문단 "...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 물체의 진행 방향(오른쪽 혹은 왼쪽)은 운동하는 물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으나 방위(동서남북)는 바뀌지 않는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구의 모양을 그려 보면 위 쪽이 북아래쪽이 남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로 정해진다. 지구 모양에서 적도에서 남반구 방향으로 직선을 표시하고 직선의 끝을 왼쪽으로 편향시키면 결국 그 방향이 동쪽이 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물체의 운동방향과 절대적으로 고정된 방위를 혼동하면 확정에 빠지게 된다.
-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 ④ 문단 "...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나다..."

[문제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개념의 사계화] $파리 = 북반구 / 진자 = 움직이는 물체 / 시계방향 회전 = 오른쪽으로 편향$
 결국 지문에서 추상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 사계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사계를 볼 때 지문에서 사용된 어떤 개념을 대응시킬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보 기>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파리의 팽태용 사원*에서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길이가 67m인 줄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g의 추를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①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 ↳ ⑤ 문단 "...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시계 반대방향)으로 편향되게 한다."
-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 ↳ ④ 문단 "...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더우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그러므로 고위도로 갈수록 진동면은 편향이 커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회전한다.
- ③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 ↳ ④ 문단 "... 더우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 ④ 적도 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군.
 - ↳ ④ 문단 "...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 ⑤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군.
 - ↳ ⑤ 문단 "...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된다..."

기출 문제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서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 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나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읽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고 여겼다.

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문제 28]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①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 ②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 ③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 ④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 주었다.
- ⑤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데에서 비롯된다.

[문제 29] ㉞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 ①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 ②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이다.
-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 ④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문제 30] <보기>와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3점]

<보 기>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당시 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당대의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탈당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였다.

- ① 슐레겔은 로시니를 ‘순수 기악의 정수’를 보여 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군.
- ② 호프만은 당시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았겠군.
- ③ 음악을 ‘삶의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받았겠군.
- ④ 스탈당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름으로써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 드를 뛰어넘은 것이겠군.
- ⑤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는 청중의 견해 때문이었겠군.

지문 독해와 문제 해설

①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서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 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 베토벤의 교향곡이 걸작으로 평가 받는 이유 - 창작 기법의 측면

②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베토벤의 신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 베토벤의 신뢰에는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③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나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 순수 기악을 추구했던 당시 새로운 청중(독일 민족)의 성향

④ 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읽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고 여겼다.

↳ 음악을 읽의 방식으로 이해한 음악 비평가들의 관전

⑤ 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 베토벤의 교향곡이 주목 받은 이유 - 천재성 담론

[문제 28]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①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 ② 문단 "...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연원(순수기악, 음악은 앞의 방식, 천재성 담론)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②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 ① 문단 "... 유례 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이었다."
- ③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 ① 문단 "...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
- ④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 주었다.
 ↳ ① 문단 "...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 ⑤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데에서 비롯된다.
 ↳ ⑤ 문단 "...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문제 29] ㉠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 ↳ ㉠ '새로운 청중'은 '순수 기악을 향해 열린 귀를 가진 청중'을 의미한다.
- ①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 음악이 인간 정서를 순화한다는 설명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②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이다.
 ↳ ③ 문단에서 언급한 당시 청중들의 취향에서 음악이 감정 전달의 수단으로 보고 있음은 확인할 수 없고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것은 ④ 문단을 확인해 보면 '베토벤 이전' 시대의 음악적 관전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 ③ 문단을 참고하여 ㉠은 악기 소리 외에 어떤 것이라도 연관되지 않은 순수 기악 음악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사의 가치를 언급한 ③번 선지는 ㉠의 지적 취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 ③ 문단 "...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 이 글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

[문제 30] <보기>와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3점]

- ↳ 지문에서 설명한 설명 대상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평가)과 비교되는 대상을 제시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문제이다. 역시 이 경우도 지문에서 언급한 '베토벤에 대한 관전'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기>와 비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보 기>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당시 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당대의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탈당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였다.

비교 대상	베토벤	로시니
활동 지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긍정적 평가자	슐레겔, 호프만	스탈당
음악적 특징	순수 기악	오페라(가사를 동반한 음악)

① **슐레겔은 로시니를 '순수 기악의 정수'를 보여 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

- ↳ ④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슐레겔'은 순수 기악음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음악 비평가이므로 베토벤을 로시니보다 더 높게 평가했을 것이다.
- ② 호프만은 당시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았
- ↳ ⑤ 문단을 참고하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평가받은 인물은 '베토벤(독일 음악)'이다.
- ③ 음악을 '얕의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받았
- ↳ ④ 문단을 참고하여 '음악을 얕의 방식'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베토벤이 보여준 '순수 기악'을 더 우월한 장르로 평가했을 것이다.
- ④ 스탈당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름으로써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 드를 뛰어넘은 것이
- ↳ <보기>에서 '스탈당'은 로시니가 현학적인 음악을 하지 않고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로 높게 평가했으므로 ④의 진술은 옳바르지 않다.
- ⑤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는 청중의 견해 때문이
- ↳ ④ 문단을 참고하여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음악을 이해하는 것은 순수 기악에 대한 독일 민족의 관전임을 알 수 있다.



기출문제를 지배하는 자
2014학년도 수능 B형 '고전 소설'



기출 문제

[앞부분 줄거리] 천상에서 벌을 받은 문창성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에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천상에 함께 있었던 제방옥녀, 천요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도 인간 세상에서 운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 양창곡과 결연을 맺는다. 양창곡은 벼슬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 그 뒤 부친 양현, 모친 허 부인, 다섯 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날 밤에 강남홍이 취하여 취봉루에 가 의상을 풀지 아니하고 책상에 ㉠의지하여 잠이 들었더니 홀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정처 없이 떠돌아 일처에 이르매 한 명산이라. 봉우리가 높고 험준하기를 강남홍이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한 보살이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錫杖)을 쥐고 있다가 웃으며 강남홍을 맞아 왈,

“강남홍은 인간지락(人間之樂)이 어떠한가?”

강남홍이 ㉡망연히 깨닫지 못하여 왈,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 보살이 강남홍을 ㉢인도하여 무지개를 밟아 공중에 올라가더니 앞에 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었는지라. 강남홍이 문 왈,

“이는 무슨 문입니까?” / 보살 왈,

“남천문이니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 보라.”

강남홍이 보살을 따라 올라 한 곳을 바라보니 일월(日月) 광채 ㉣휘황한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솟았거늘 백옥 난간이며 유리 기둥이 영롱하여 눈이 부시고 누각 아래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이 ㉤배회하며 몇몇 선동(仙童)과 서너 명의 시녀가 신선 차림으로 난간머리에 섰으며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난간에 의지하여 취하여 자는지라. 보살께 문 왈,

“이곳은 어느 곳이며 저 선관, 선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살이 미소 지으며 왈,

“이곳은 백옥루요 제일 위에 누운 선관은 문창성(文昌星)이요 차례로 누운 서너는 제방옥녀(諸方玉女)와 천요성(天妖星)과 홍란성(紅鸞星)과 제천선녀(諸天仙女)와 도화성(桃花星)이니,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前身)이니라.”

강남홍이 속으로 놀라 왈,

“저 다섯 선녀는 다 천상에서 입도(入道)한 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을 잡니까?”

보살이 홀연 서쪽을 보며 함장하더니 시 한 구를 외워 왈,

정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기도다.
정이 다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만 가지 생각이 함께 텅 비는구나.

강남홍이 듣고 정신이 상쾌하여 문득 깨달아 왈,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계(下界)에 내려온 것이로다.”

(중략)

강남홍 왈,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나이다.”

보살이 웃으며 왈,
 “하늘이 정한 인연을 인력으로 할 바 아니다. 그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빨리 돌아가라. 사십 년 후에 다시 옥황상제께 조회하고 천상지락(天上之樂)을 누릴지어다.”

강남홍이 문 왈,
 “보살은 뉘십니까?”

보살이 웃으며 왈,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 관세음보살이라. 부처의 명을 받아 그대를 지도하러 왔노라.”

보살이 말을 마치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오색 무지개 일어나며 홀연 우렛소리 울리거늘 강남홍이 놀라 깨어 보니 몸이 취봉루 책상 앞에 누웠는지라.

강남홍은 꿈속 일이 의아하여 연왕과 윤 부인, 황 부인, 벽성선, 일지련에게 낱말이 말하니 그들 또한 같은 꿈을 꾸었는지라. 서로 탄식하며 의아해 하더니 허 부인이 듣고 강남홍더러 왈,

“내 고향에 있을 적 늣도록 무자(無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을 낳았으니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라.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갚지 못하였더니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佛事)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듣자 하니 벽성선의 부친 보조국사께서 자개승 대승사에 계신데 불법(佛法)에 정통하다 하니 청하여 옥련봉 돌부처를 위하여 일개 암자를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 백일 동안 재(齋)를 올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운 공덕을 갚고자 하노라.”

벽성선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보조국사를 청하여 재 올리기를 시작하고 재물을 후히 보내어 옥련봉에 암자를 창건하였더니, 과연 그 후 사십 년을 부귀를 누리다가 양현과 허 부인은 수(壽)를 팔십여 세 하고, 연왕은 다시 출장입상하여 또한 수를 팔십을 하고, 윤 부인 삼자 이녀(三子二女)에 수 칠십이요, 황 부인은 이자 일녀에 수 육십을 넘기고, 강남홍은 오자 삼녀에 수 칠십이요, 벽성선, 일지련은 각각 삼자 이녀에 수를 또한 칠십 세를 하니, 연왕의 자녀 합 이십육에 아들 십육 인은 각각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딸 십 인은 왕공 부인이 되어 다자 다복(多子多福)하더라.

- 남영로, '옥루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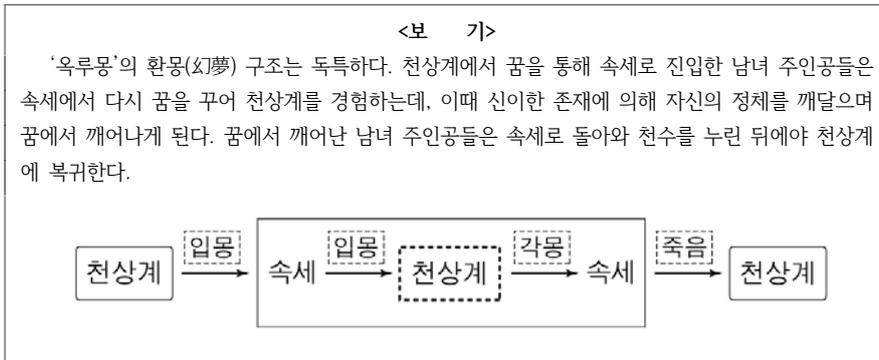
[문제 3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두 인물을 배치하여 인물 간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의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강남홍’은 ‘명산’에서 ‘보살’을 처음 만났다.
- ② ‘보살’은 ‘석장’을 이용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다.
- ③ ‘강남홍’은 선관, 선녀들과 ‘남천문’에서 재회하였다.
- ④ ‘보살’은 ‘강남홍’이 천상의 존재였음을 알려 주었다.
- ⑤ ‘허 부인’은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여 ‘양창곡’을 낳았다.

[문제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취봉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입몽하는 공간이군.
- ② ‘강남홍’이 ‘백옥루’를 보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백옥루’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천상계의 공간이군.
- ③ ‘보살’이 ‘강남홍’에게 인간 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이군.
- ④ ‘허 부인’이 ‘보살’을 ‘옥련봉 돌부처’와 연관 짓는 것으로 보아, ‘암자’를 창건한 것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서의 보답이군.
- ⑤ ‘양창곡’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졌군.

[문제 3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 : 기대어
- ② ㉡ : 명하니
- ③ ㉢ : 이끌어
- ④ ㉣ : 눈부신데
- ⑤ ㉤ : 어울리며

지문 분석과 문제 해설

[옥루몽은.....]

옥루몽은 19세기 남영로가 지은 고전소설로서 천상에서 적강한 주인공 양창곡의 영웅적 일대기를 담은 회장체 소설이다.

[앞부분 줄거리] 천상에서 별을 받은 문창성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에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적강 모티브/입몽)** 천상에 함께 있었던 제방옥녀, 천요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도 인간 세상에서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 양창곡과 결연을 맺는다. 양창곡은 벼슬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영웅소설 / 입신양명, 축장입상**). 그 뒤 부친 양현, 모친 허 부인, 다섯 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날 밤>에 **강남홍**이 취하여 **췌우루**가 의상을 풀지 아니하고 책상에 의지하여 잠이 들었더니 홀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정처 없이 떠돌아 일처에 이르매 한 명산이라(**몽중몽 구조, 꿈 속에서 다시 꿈을 꿈 → 현실(선계)로 돌아감**). 봉우리가 높고 험준하거늘 강남홍이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한 **보살**이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錫杖)을 짚고 있다가 웃으며 강남홍을 맞아 왈,

“강남홍은 인간지락(人間之樂)이 어떠한가?”

강남홍이 망연히 깨닫지 못하여 왈,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시는 것입니까?”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 보살이 강남홍을 인도하여 무지개를 밟아 공중에 올라가더니 앞에 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었는지라. 강남홍이 문 왈,

“이는 무슨 문입니까?” / 보살 왈,

“남천문이니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 보라.”

강남홍이 보살을 따라 올라 한 곳을 바라보니 일월(日月) 광채 휘황한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솟았거늘 백옥 난간이며 유리 기둥이 영롱하여 눈이 부시고 누각 아래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이 배회하며 몇몇 선동(仙童)과 서너 명의 시녀가 신선 차림으로 난간머리에 섰으며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난간에 의지하여 취하여 자는지라(**전기적 배경 묘사**). 보살께 문 왈,

“이곳은 어느 곳이며 저 선관, 선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살이 미소 지으며 왈,

“이곳은 <췌우루>요 제일 위에 누운 선관은 문창성(文昌星)이요 차례로 누운 서너는 제방옥녀(諸方玉女)와 천요성(天妖星)과 홍란성(紅鸞星)과 제천선녀(諸天仙女)와 도화성(桃花星)이니, **공관성은 즉 그대의 전신(前身)이니라.** ” (**꿈을 통해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됨**)

강남홍이 속으로 놀라 왈,

“저 다섯 선녀는 다 천상에서 입도(入道)한 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을 잡니까?”

보살이 홀연 서쪽을 보며 합장하더니 시 한 구를 외워 왈,

정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기도다.

정이 다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만 가지 생각이 함께 텅 비는구나.

강남홍이 듣고 정신이 상쾌하여 문득 깨달아 왈,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계(下界)에 내려온 것이로다.”

(보살의 시를 통해 자신이 하늘의 ‘별’이었다가 인간 세상으로 적강한 사식을 깨달음)

(중략)

강남홍 왈,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나이다.”

보살이 웃으며 왈,
 “하늘이 정한 인연을 인력으로 할 바 아니다. 그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빨리 돌아가라. 사십 년 후에 다시와 옥황상제께 조회하고 천상지락(天上之樂)을 누릴지어다.” (**보살은 강남홍에게 미래의 인을 예언하여 줌**)
 강남홍이 문 왈,
 “보살은 뉘십니까?”
 보살이 웃으며 왈,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 관세음보살이라. 부처의 명을 받아 그대를 지도하러 왔노라.”
 보살이 말을 마치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오색 무지개 일어나며 홀연 우렛소리 울리거늘 강남홍이 놀라 깨어 보니 몸이 취봉루 책상 앞에 누웠는지라. (**꿈을 깬(각몽)**)

나 소설 독해의 기본은 장면을 나누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강남홍’이 꿈을 꾸어 ‘백복후’에 올라가 자신이 하늘나라의 ‘벽’이었음을 알게 되는 꿈 이야기로 이 지문의 첫 장면이다.

강남홍은 꿈속 일이 의아하여 **연왕과 윤 부인, 황 부인, 벽성선, 일지련에게 낱말이 말하니 그들 또한 같은 꿈을 꾸었는지라 (전기성 / 서로 인연이 있음)**. 서로 탄식하며 의아해 하더니 **허 부인**이 듣고 강남홍더러 왈,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無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을 낳았으니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라.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갚지 못하였더니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佛事)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듣자 하니 벽성선의 부친 보조국사께서 자개승 대승사에 계신 데 불법(佛法)에 정통하다 하니 청하여 옥련봉 돌부처를 위하여 일개 암자를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 백일 동안 재(齋)를 울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갚고자 하노라.”

벽성선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보조국사를 청하여 재 올리기를 시작하고 재물을 후히 보내어 옥련봉에 암자를 창건하였더니, 과연 그 후 사십 년을 부귀를 누리다가 양현과 허 부인은 수(壽)를 팔십여 세 하고, 연왕은 다시 출장입상하여 또한 수를 팔십을 하고, 윤 부인 삼자 이녀(三子二女)에 수 칠십이요, 황 부인은 이자 일녀에 수 육십을 넘기고, 강남홍은 오자 삼녀에 수 칠십이요, 벽성선, 일지련은 각각 삼자 이녀에 수를 또한 칠십 세를 하니, 연왕의 자녀 합 이십육에 아들 십육인은 각각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딸 십인은 왕공 부인이 되어 다자 다복(多子多福)하더라. (**서술자에 의한 요약적 제시**)

나 꿈 이야기를 나누고, 관세음보살에 대한 공덕을 갚기 위해 정을 세우는 이야기로 후일담이 서술자에 의해 요약되는 두 번째 장면이다. 첫 번째 장면은 보살과의 대화를 통해 보여 주기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건 전개가 느린 반면, 두 번째 장면은 서술자에 의해 요약적으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문제 3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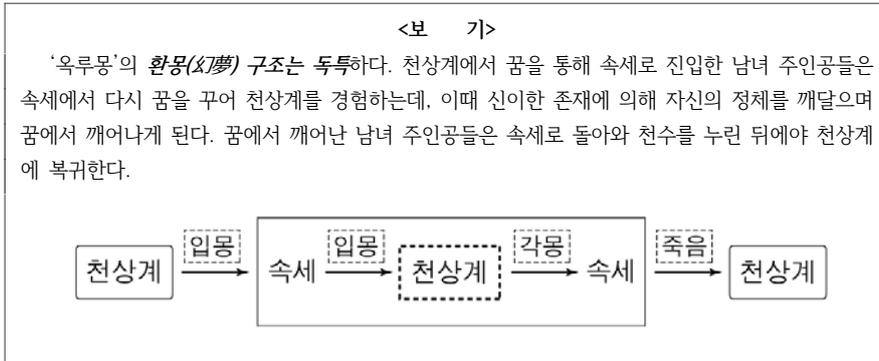
- ↳ 소설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서술상의 특징 파악’ 문제이다. 우선 글 전체의 시점을 고려하고, 글에서 사용된 주요한 표현방식, 사건 전개방식등을 파악한 후 선지층 검토해야 한다.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 첫 장면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것은 서술자가 아니라 등장 인물중의 하나인 ‘보살’이다.
- ② 대립적인 두 인물을 배치하여 인물 간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갈등이나 대립의 관계에 있는 인물은 찾을 수 없다.
- ③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의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 취봉루에 있던 강낭홍이 끊을 꾸어 환상적 세계에 들어가는 첫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 내적 독백은 나오지 않으며, 극복해야 할 난관의 상황도 언급된 바가 없다.
- 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 첫 장면에서 ‘보살’의 외양을 묘사하고는 있으나 이는 ‘보살’의 신비스러운 면모를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는 확인할 수 없다.

[문제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소설 문제에서도 지문을 사실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상상과 추론에 바탕을 두지 않고 눈으로 읽은 지문에서 확인해서 선지를 선택해야 한다.
- ① ‘강남홍’은 ‘명산’에서 ‘보살’을 처음 만났다.
 - ↳ 첫 장면에서 ‘강낭홍’은 ‘보살’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처음 만났다는 진술은 틀리지 않다.
- ② ‘보살’은 ‘석장’을 이용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다.
 - ↳ 첫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③ ‘강남홍’은 선관, 선녀들과 ‘남천문’에서 재회하였다.
 - ↳ ‘강낭홍’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이 선관, 선녀등을 목격하였을 뿐이지 그들이 재회한 것은 아니다. 첫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보살’은 ‘강남홍’이 천상의 존재였음을 알려 주었다.
 - ↳ 첫 장면에서 ‘보살’은 ‘홍낭성’이 ‘강낭홍’의 전신이라고 알려 주고 있다.
- ⑤ ‘허 부인’은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여 ‘양창곡’을 낳았다.
 - ↳ 두 번째 장면에서 끊을 끈 이야기를 서론 나누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 33]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를 정확히 읽고 <보기>에서 제시한 감상의 방향대로 선지층 선택해야 한다.



①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취봉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입몽하는 공간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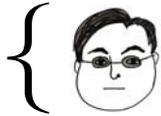
↳ 취봉루에서 꾸는 꿈은 속세의 ‘강남홍’이 꾸는 꿈이므로 ‘취봉루’는 속세에서 천상계로 입몽하는 공간이다. 진속이 반대로 되어 있다.

- ② ‘강남홍’이 ‘백옥루’를 보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백옥루’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천상계의 공간이군.
- ③ ‘보살’이 ‘강남홍’에게 인간 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이군.
- ④ ‘허 부인’이 ‘보살’을 ‘옥련봉 돌부처’와 연관 짓는 것으로 보아, ‘암자’를 창건한 것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서의 보답이군.
- ⑤ ‘양창곡’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졌군.

[문제 3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 : 기대어
- ② ㉡ : 명하니
- ③ ㉢ : 이끌어
- ④ ㉣ : 눈부신데
- ⑤ ㉤ : 어울리며

↳ ‘배회하다’는 ‘어수렁 거리며 돌아다니다’의 뜻이므로 적절한 바꿔쓰기가 아니다.



기출문제를 지배하는 자
2014학년도 수능 B형 '현대 소설'



기출 문제

“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은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테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입니다. 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략)

- 이 달의 화제작, 화제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함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A]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 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 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빈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 이청준, '소문의 벽'

[문제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기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문제 36]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문제 37]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전지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② '전지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 말문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지문 분석과 문제 해설

“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중요한 걸 물어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은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어둠을 싫어하는 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일엔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테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나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씀입니다. 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 나 이 장면의 장소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글 내용으로 추론해 본다면 ‘정신병원’이라고 볼 수 있다. 어제 밤에 ‘박준’이 발작을 일으킨 후 김박사는 박준이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힌트를 얻었다고 말한다. 김박사의 진술에 따르면 박준이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는 어둠은 전깃불을 연상하게 하고, 전깃불은 공포의 촉매물이기 때문에 박준이 어둠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준이 무엇 때문에 전깃불을 보면 공포를 느끼는 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 나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장면(정신병원)이다. ‘나’는 박준의 공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박준이 쓴 소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김 박사에게 권하고 있으나 김 박사는 원인을 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찾아 놓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나’의 제언을 무시하고 있다.

(중 략)

- 이 달의 화제작, 화제 작가.

신문자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인물의 내면이 나 정서가 진솔하면 눈여겨 보아야 한다. 심장의 원인도 파악해야 한다. 박준의 비평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신문을 보다가 읽을 부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망을 느끼게 된 것이다.)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다.)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A]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 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 부터였다.

↳ 두 번째 장면은 박준의 인터뷰가 실린 신문 기사의 내용을 생입함으로써 인해 박준이 전깃불에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고, 또한 박준은 소설쓰기에서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느낀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문제 35]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첫 장면에서 '나'가 제시한 방법(소성 읽기)을 거부하고 마지막 방법을 찾았다고 자신있게 말하게 있다.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김 박사의 치료 방안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소성 읽기'라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해 본다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진술로 보인다.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첫 장면에서 김 박사는 발작을 일으킨 사인은 알고 있으나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기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상대방의 정체를 모른 채 대담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느끼는 적당함이다. 상황을 추론하면 잘못 대담하면 자신과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아직 아들의 안전을 지켰는지 어쩐지는 대담을 강요당하는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 실명의 원인은 읽을 만한 기사가 모두 찢겨져 나갔기 때문이다. 지문을 정확히 독해하자.

[문제 36]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고향'에서의 이야기라고만 진술되어 있고 특정 지역은 언급한 바가 없다.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 부분을 진술하는 사람은 '박준'이다. 그리고 객관적 시점은 서술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드러남 없이 상황만을 제시해야 하는데, ㉠의 첫 부분에서 '박준'은 '기분 나쁜 기억'이라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담을 강요당한다면 누구나 적당하고 공포를 느끼기므로 ㉠ 상황 묘사를 통해 인물(어머니)의 성격을 알기도 어렵다.

③ 주인공의 / 두 경험을 / 연관 지어 /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일단 주인공은 '박준'이다. 박준은 ㉠부분에서 과거 고향에서의 경험과 현재 글쓰기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기억은 공포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연관되어 있고, 독자 등은 이 진술을 통해 '박준'이 전깃불에서 왜 공포를 느끼는지 이해하는 단서를 얻게 된다.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과거 고향에서의 사건을 '박준'의 입으로 진술되고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구성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 ㉠번 선지의 설명과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며, 고향에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문제 37]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를 감각하고서는 <보기>를 기준으로 한 감상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낼 수 없다. <보기>를 사실적으로 읽고 지문의 내용과 적절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보 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 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정신적 외상의 치유 방법으로써 '말문 트기'를 설명하고 있고, 소설은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말문 트기'의 하나라고 진술하고 있다.

- ① '전지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 <보기>에서 '충격적 경험'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다고 진술되어 있고,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이 글이 제시하고 있는 인물은 '박준'이다.
- ② '전지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 말문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 <보기>에서 '소설'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설쓰기에서 느끼는 공포를 진술하는 '박준'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 <보기>에서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정신적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했고, 전쟁이라는 상황은 사회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 ↳ <보기>를 참고하며 '말문 트기'는 정신적 외상의 치유 방법이지 '위험한 질문 회피'의 수단이 아니다.



기출 문제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웁고
 넉 막음 둘 티 업셔 냇그의 안자시니
 저 물도 넉 은 갓혀여 우러 밤길 네넛다

- 왕방연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어는다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무쳤는다
 잔(盞) 자바 권(勸)홀 이 업스니 그를 슬허 하노라.

- 임 제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흥노라.

-원천석

- * 홍안 :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 만월대 : 고려의 왕궁 터
- * 목적 : 목동의 피리

[문제 38] (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인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문제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니 은 곳혀'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밤길 네눗다'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무척는다'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蠶) 자바 권(勸)홀 이 업스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흔고, 넷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서 至樂(지락)을 맛들 것가.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픽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띄여 잇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롭다.

- 정극인, '상춘곡'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지문 분석과 문제 해설

(가) 천만리(千萬里) 떠나면 길히 고은 님 여희옵고
 님 믿음 들 뒤 업서 냇그의 안자시니
 저 물도 님 은 곳혀여 우리 밤길 네뫼다 - 왕방연

나 왕방연이 ‘단종’을 영월 유배지에 모셔 놓고 한양으로 돌아오며 쓴 시로 알려져 있다.

- * 천만리 : 님과 학자 사이의 거리감
- * 고은 님 : 단종
- * 여희옵고 : 이별의 상황
- * ‘물’ : 학자의 정서 투영 / 감정 이입의 대상 (①주관적 정서 ②대상과 학자의 정서 일치)
- * 주제 : 님과 이별한 애달픈 심정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어는다
 홍안(紅顔)을 어찌 두고 백골(白骨)만 무쳤는다
 잔(盞) 자바 권(勸)홀 이 업스니 그를 슬허 하노라. - 임 제

나 작가 ‘임 제’가 평양도사로 부임해 가는 길에 ‘항진어’의 무덤 앞에서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다. 생전에 아꼈다웠던 항진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백골로 누워 있는 무덤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 * 청초 : 푸른 풀
- * 홍안 :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
- * 잔 : 술잔
- * 주제 : 님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무상감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흐노라. - 원천석

나 고려의 충신이었던 원천석은 고려의 옛 도읍지인 개경의 궁궐터(만월대)를 돌아보며 백수지탄과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다.

- * 흥망이 유수하니 : 음하고 망하는 것은 운수가 있으니
- * 만월대도 추초다 : 항조의 몰락을 시각적으로 표현
- *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부쳐시니 : 고려왕조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청각적으로 표현
- * 석양 : 종의적 표현으로 자연적 배경 혹은 기우는 고려왕조를 의미한다.
- * 객 : 학자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주제 : 망국의 한과 고려왕조에 대한 회상

[문제 38] (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대상 : (가) 고은 님, (나) 흥안(항진이), (다) 고려양조

상황 : 현재 학자 곁에 존재하지 않는 것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제시된 어떤 시에도 드러난 바 없다.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제시된 어떤 시에도 드러난 바 없다.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인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제시된 어떤 시에도 드러난 바 없다.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 제시된 어떤 시에도 드러난 바 없다.

[문제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님과 학자의 거리를 ‘천만 리’로 설정한 과장된 표현으로 님과 학자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의 ‘저 물도 니 온 고희여’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학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이별의 슬픔을 느끼는 학자의 마음을 ‘물’에 투영하여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동일시하고 있다.

③ (가)의 ‘밤길 네눗다’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학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님과 이별해야 하는 부정적 상황을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무척는다’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학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살아 생전에는 ‘흥안’(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죽은 후 ‘백골’이 된 모습을 통해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의 ‘잔(蠶) 자바 권(勸)홀 이 업스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술잔을 장아 권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상이 죽었기 때문이지 세태 때문이 아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

[문제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흔고, 넷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셔 至樂(지락)을 맛들 것가.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띄여 있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롭다.

- 정극인, '상춘곡'

↳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등아, 이 나의 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옛 사람의 운치 있는 생활을 내가 따를까, 못 따를까? 천지간 낚자로 태어날 몫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어찌하여 그들은 나처럼 산림에 묻혀 사는 자연의 지극한 증거움음 모른단 말인가? 초가삼간을 맑은 시냇가 앞에 지어 놓고, 송죽이 웅창한 속에 풍월주인이 되어 있도다.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복사꽃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프르도다. 조물주가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아담스럽다.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 시조와 가사는 모두 4음보의 율격을 가진다.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 (다)에서 제시된 공간은 '막원대(고려의 양궁터)' 밖에는 없으므로 이질적 공간의 대비가 없고, <보기>는 '홍진(속세)'와 '산림(자연)'의 공간적 대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 (다)는 '눈물 겨워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보기>는 석의법 등을 사용하여 봄 경치를 즐기는 만족감과 들뜬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 (다)에서 사용된 석양은 '고려 양조의 몰락'을 암시하는 하강의 이미지로 사용되었고, <보기>에서 '석양'은 화자가 감상하는 '봄 경치'를 더 돋보이게 하는 밝은 느낌의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 ↳ (다)는 독백체로 진술되었고, <보기>는 '이봐 이웃등아'에서 말을 건네는 대화의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지배하는 자
2014학년도 수능 B형 '현대시'



기출 문제

(가)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성긴 빗방울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은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조지훈, '파초우(芭蕉雨)'

* 후두기는 : 후두둑 떨어지는

(나)

[A]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툭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B]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C][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규, '사평역(沙平驛)에서

[문제 4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 ③ (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관심을 나타낸다.
- ④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나)는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하여 독백적 어조에 변화를 준다.

[문제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 ① 제1연 :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제2연 :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제시된다.
- ③ 제3연~4연 :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 ④ 제4연 :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제5연 : ‘어디메’는 자연 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문제 4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A]의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C]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디어 내게 해 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어 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지문 분석과 문제 해설

↳ 수능 시험에서 처음 보는 낯선 시가 나왔다고 전제한다면, 내신 시험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세세한 표현방식까지 모두 시간 내에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쉽지 않다. 다만, 낯선 시가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대상 혹은 상황, 학자의 정서적 태도는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가)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학자는 구름을 보며(감정이입) 설 곳 없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성긴 빗방울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 외로운 마음의 학자는 저녁 어스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있다.
(시에서 사용되는 배경은 대체로 학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 외로운 학자는 명령형을 통해 '푸른 산'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학자의 상황을 통해 추측하자면 외로운 학자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푸른 산'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 푸른 산(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은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푸른 산'과 같은 안식처를 지향하고 있는 학자의 정서를 읽어 낼 수 있다.

- 조지훈, '파초우(芭蕉雨)'

* 주제 : 푸른 산(자연) 속에서 안식하고자 하는 소망

(나)

[A]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툭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 추운 겨울 대합실에서 톱방난로를 쬐며 막차(기다림의 대상)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믐처럼 멎은 졸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대합실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묘사 / 그들에게 따뜻한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톱밥을 난로에 넣음

[B][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 **대항식에서 딱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살은 작은 선물을 가지고 고향에 가는 기분으로 침묵(인내)해야 하는 것이라는 상념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찌르르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 **대항식의 상황. 말 없이 딱차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내리는 눈 내리는 소리가 귀
 를 기웁니다**

[C][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대항식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면의 마음(눈물)을 표현하며 톱밥을 넣음**

- 광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 주제 : 딱차를 기다리는 대항식 사람들의 삶의 제한과 그들에 대한 연면

[문제 4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 시에서 비유라고하면 일반적으로 직유, 은유, 의인을 살펴보면 된다.
 (가)에서는 의인법(희로운 구름)이 사용되었으므로 비유의 방식이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 역동적인 분위기는 대상의 움직임을 통해 판타지한다. (나)는 고정된 공간에서 진술하는 이야기로
 서 특별한 대상들의 움직임을 찾기 어려우므로 역동적인 분위기로 볼 수 없다.
- ③ (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관심을 나타낸다.
 ↳ (가)시는 비층 통해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드러내
 는 시어가 없고, 또한 (나)가 하강의 이미지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심
 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단지 희로운 학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배경일 뿐이다.
- ④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나)는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 (가)에서는 창 열고 바라보는 '푸른 산'에 대해서 (나)는 '그리웠던 순간(라거)'에 대한 그리움
 이 시어를 통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하여 독백적 어조에 변화를 준다.
 ↳ (가)에서는 '이 밤을 어디에서 쉬냐면고? (이 밤을 어디에서 쉬까?)'를 통해 스스로 묻는 질문
 이 드러나 있으나 (나)에서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찾을 수 없다.

[문제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 ① 제1연 :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보기>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방랑자)”
- ② 제2연 :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제시된다.
 ↳ <보기> “...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 ③ 제3연~4연 :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 <3연>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 푸른 산은 화자가 마주하고 싶은(지향하는) 대상이다.
 ↳ <보기> “...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
- ④ 제4연 :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보기> “...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
- ⑤ 제5연 : ‘어디메’는 자연 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 <5연>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어디에서 쉬수 있을까?)” → 방랑하는 화자가 쉬고 싶은 공간이 ‘어디메’이므로 ‘어디메’는 화자가 지향하는 긍정적 공간이고 <보기>를 참고하여 ‘자연’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디메’를 벗어나고자 하는 부정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제 4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A]의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 <보기> “**작지만 진심어린 선물**”
- ②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보기> “**화자는...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 ③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3연> “**눈꽃의 화음**”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대상이므로 시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단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재로 보는 것이 옳은 감상이고, <보기>에서 ‘한 줌의 눈물’의 의미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③은 잘못된 진술이다. 모든 감상의 기준은 <보기>에서 진술된 내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④ [C]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디어 내게 해 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어.
- ↳ 시의 내용을 통해 본다면 '지난 날을 호명'하는 것과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이 고단한 삶을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진심어린 선물이라면 그 과정에서 '그리웠던 지난 날을 호명하는 것'도 지난날의 그리운 작은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를 견디내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어 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 <보기>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출 문제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 한층 더 검혀하다. 이 예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걸 풀밭에 가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反芻)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이가 보다.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審理)하였으리라. 그러나 오 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렸길래 이미 위에 들어갈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半消化物)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중 략)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높이 한 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흥명한 형리(刑吏)처럼 - 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 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질식할 만치 심심해야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 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 - 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 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 - 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 - 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는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높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높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을 알고 - 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꼭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아무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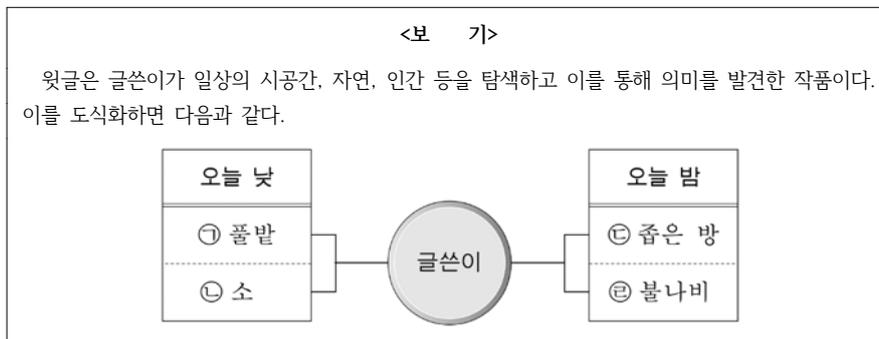
- 이상, '권태'

* 등대 :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문제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비유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글쓴이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며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문제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이 권태에 빠진 글쓴이에게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라면, ㉡은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글쓴이에게 도피처를 의미하겠군.
- ② 글쓴이는 ㉠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다가 마침내 그 원인을 ㉡에서 찾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에 주목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군.
- ④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 ㉢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군.

지문 분석과 문제 해설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 한층 더 검혀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 가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反芻)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나. 아마 병인이가 보다.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審理)하였으리라. 그러나 오 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갈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半消化物)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 **퐁밭에서 퐁을 반추하고 있는 소를 보면서 지상 최대의 권태자(비유를 통한 대상의 속성 제시)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학자는 소처럼 사색의 반추조차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는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생각하고 있다.**

(중 략)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놈이 한 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흉명한 형리(刑吏)처럼 - 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 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질식할 만치 심심해야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 해야 된다.

↳ **내일이 학도 오늘과 같은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 - 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 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 - 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 - 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 **나의 일상은 장기나 두고 송사리나 보는 이상의 반복이다 (끝없는 나태)**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는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을 알고 - 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 **불나비는 정열의 생물이다 (불 학자와 대비)**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 **이곳은 정열을 표출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나태한 공간이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꼭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오늘 떨고 있을 뿐이다.

↳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나태하고 무의한 일상이 반복될 것을 생각하면 두렵다 (극복되지 않은 것은 학인할 수 없음)**

[문제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 ‘소는 식욕의 증거움조차 냉대할 수 없는 지상 천대의 권태자다.’라는 표현에서 은유법(비유)을 사용하여 소에 대한 생각(상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무효함, 나태함)은 제시되어 있으나 ‘우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향락하는 체해 보인이지오?” 등에서 설의적 표현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자연과의 조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이 글 속에서 화자는 무효한 일상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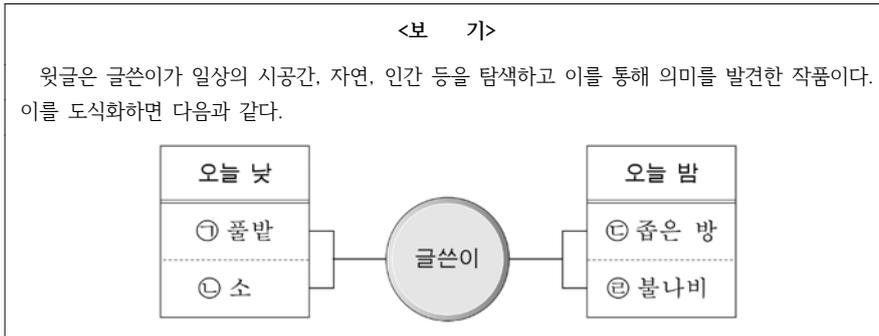
④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과거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⑤ 글쓴이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며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문제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권태에 빠진 글쓴이에게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라면, ㉢은 나태한 삶을 피해 온신한 글쓴이에게 도피처를 의미하겠군.

↳ 이 글에서 화자에게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글쓴이는 ㉠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다가 마침내 그 원인을 ㉢에서 찾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군.

↳ 무기력함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원인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글쓴이는 ㉢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에 주목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군.

↳ ㉢과 같은 의지적 태도는 이 글의 화자에게서 확인할 수 없다.

④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군.

↳ ㉣ 폭발에서 소를 보며 사색의 반추조차 확신할 수 없는 자신의 고독함을 생각하고 있고, ㉣ 불나비를 통해 역정적인 생물을 예찬하고 있으나 자신은 그런 역정을 바꿀 대생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오늘과 같이 무효하게 반복될 다가올 내일에 대해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 ㉣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군.

↳ ㉣은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이지 화자와 동역시 되는 존재가 아니다.

